경기 침체 사찰에도 영향

전국 절 50곳 조사, 시주 최고 절반 줄어

최근 우리 사회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찰들도 신도가 줄거나 시주금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찰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행사 개최, 교양대학 활성화, 지역법회 재개 등 묘안을 짜내고 있다.

본지가 수도권과 강원 · 충청 · 영남 · 호남 등 전국 50여 표본사찰을 전화로 설문한 결과, 사찰의 수입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절반까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 소재한 S사찰과 안양의 H사찰의 경우 불전금 수입이 50% 이상 줄었고, 정기법회 참석인원도 예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의 G사찰 이천의 G사찰도 불전금과 기도비가 예년의 70%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의 W사찰과 M사찰의 경우 불전비, 기도비, 보시금 등이 50%대로 급감했고, 둘러보러 오던 참배객의 발길이 거의 끊겼다. 게다가 기도비나 보시금은 분납으로 내겠다는 사례도 최근 6개월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관람료사찰의 경우도 주요 수입원인 문화재 관람료 수입이 3분의 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J사찰과 공주의 G사찰은 2~3월 두달간 문화재관람료가 15%가량 적게 걷혔다.

이같은 현상은 경기 침체가 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불자들의 주머니도 쉽게 열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법회나 기도에 참석하는 인원이 증가한 경우는 어려울수록 신앙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사찰에서 개인의 소망을 발원하는 인등수요가 늘어난 점이이를 반증한다. 특히 이들 사찰은 특별법회, 법회일 조정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서울의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부산 혜원정사, 여여선원, 인천 흥륜사, 대전 광수사, 울산 내원암, 영천 은해사, 수원포교당, 밀양 용궁사 등은 불전금과 신도수가 예년 수준이거나 약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찰들은 교양대학을 활성화해 신도를 늘리고, 특별 · 지역법회 등을 열어 신도들을 절로 이끌고 있다. 신도교육 등을 통해 신도들과 쌍방향으로 교류하고 활성화를 모색해 사찰과 한층 가깝게 한다는 점도 한 비결로 나타나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깜짝 이벤트 기대해도 좋아요”

자타공인 봉축행사 최고팀…올 테마 ‘共用’

학생회·여신도 등 공연 준비·의상 제작 한창

“초롱아, 부채 모양을 잘 잡아야 해. 자 다시 해 봐, 동미도 잘 쫓아오고….”

“선생님, 잘 안돼요. 음악이 없어서 그런가?”

제17대 총선날인 4월 15일 오전 안양 한마음선원 3층 법당. 15명의 여 중 · 고생들이 부채춤 배우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같은 시간, 2층과 4층 강당에서는 학생들이 스포츠 댄스와 수화공연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한마음 선원의 학생회는 이번에도 200여명으로 ‘거리포교단’을 구성해 부채춤, 스포츠댄스, 풍물, 수화, 인도춤, 장구춤 등 10여개의 팀들이 봉축행사가 열리는 서울 조계사 인근 인사동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각종 공연을 선보인다.

지하 1층 식당에서는 여신도들이 모여 제등행렬 때 입을 의상을 직접 제작하고 있다. 재봉틀 소리와 바느질에 열중하는 숨소리가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지하 3층에서는 장엄등 채색 작업이 한창이고, 그 옆에서 봉축행사준비 책임을 맡고 있는 청년회 지도법사 혜묵 스님과 청년회장 박성완씨는 준비상황 점검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봉축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안양 한마음 선원은 더욱 분주해졌다. 안양 한마음선원의 본격적인 봉축 행사 준비는 이미 3월부터 시작됐다. 청년회를 중심으로 어린이회, 학생회는 물론 거사회(법형제회)와 여신도회가 역할을 분담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한마음 선원의 봉축행사 테마는 ‘공용(共用)’.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행사를 보는 사람들과 화합하고, 그 사람들과 자연이 화합해 모두가 하나가 되자는 의미다.

한마음선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봉축행사의 최고팀. 혜묵 스님은 “대행 큰스님의 말씀대로 모든 대중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를 기획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불자들을 놀라게 할 비장의 카드는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미리 알려지면 재미없잖아요” 하면서 “기대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한명우 기자

인드라망 ‘생명살림불사’

인재 양성·도량 기금 마련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가 인재 양성과 도량 기금 마련 등을 위한 ‘생명살림불사’를 시작한다.

인드라망은 이를 위해 추진위원단(공동추진위원장 백납석)과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키로 했다. 또 생명살림도량 기금 조성을 위해 법회와 좌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도량은 청소년 공간(20평), 교육원 및 법당(30평), 사무공간(20평), 생협매장 및 휴식공간(15평) 등으로 꾸밀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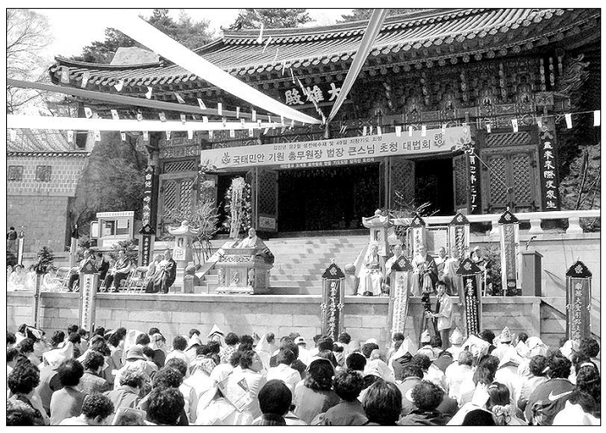
생명살림불사를 위한 도법 스님의 ‘즉문즉설(卽門卽說)’ 법회는 4월 21일 오후 7시 남원에서 시작된다. 법회는 도법 · 수경 스님이 진행하고 있는 생명평화 탁발순례 예정지를 따라 지속적으로 펼쳐진다.

생명살림불사 좌담회 및 추진위원단 출범식은 5월 6일 오후 7시 서울지역에서 열린다. ‘우리시대의 새로운 불사’ 주제로 정토회, 우리는 선우 등이 토론에 참가할 전망이다. 6월 중순에는 도량 설명회 및 후원 기금 조성 만찬회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인드라망은 4월 13일 이라크 파병 철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드라망은 성명서에서 “이라크전이 내전 상태로 진전되고 있고, 초기 파병했던 국가는 파병군을 철수할 계획”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한국군을 파병한다는 것은 국제 정세에 아둔하거나 한국 젊은이들의 목숨을 함부로 취급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국태민안 기원 서울 삼각산 도선사(주지 혜자)가 4월 13일 ‘국태민안 기원 총무원장 법장 스님 초청 대법회’를 호국참회원 3층 앞 안마당에서 봉행했다. 7백여명이 함께 한 이날 법회는 생전예수재 및 49일 지장기도 회향법회를 겸해서 진행됐다. 사진=김은경 기자

한·일 청소년 문화교류 나선다

파라미타, 8월18일부터 대마도·부산서

2004년 한 · 일 청소년들이 ‘新조선통신사’로 양국의 문화교류를 위해 나선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가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7박 8일간 대마도와 부산일대에서 한 · 일문화교류 ‘조선통신사 역사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측 청소년 30여명이 우선 대마도 이나시현을 방문, 일본 대마고등학교 청소년들과 일본불교문화 체험을 한 후 일본측 청소년을 초청,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파라미타 조한곤 과장은 “이번 조선통신사 프로그램이 한 · 일 청소년의 상호방문교류로 진행되는 만큼, 양국의 불교문화를 비교 · 분석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총선개표 인터넷 생중계

대구불교방송 실시간 정보제공

BBS 대구불교방송은 17대 국회의원 총선 투개표현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했다.

4월 15일 대구불교방송 전산팀(팀장 최대종 외 8명)이 도표와 그래프를 이용해 보도한 총선투개표현황 인터넷실시간중계는 비록 대구 경북지역에 한한 데이터 보급차원이었으나 교계에서 처음 있는 일로 교계방송의 능력과 위상을 한층 올릴 수 있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최대종 팀장은 “처음이라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안내를 할 것이며, 전국단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목탁소리

범어사 ‘화합의 등’ 밝혀야

“이젠 안정되는가 싶었더니…”

범어사 차기 주지 선출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지켜보던 불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3년이 넘는 시간동안 부산 유일의 교구본사이자 선찰대본산인 범어사는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차기 주지 선출을 둘러싼 내홍을 겪었다. 그동안 범어사는 제 역할을 상실한 채 비틀거렸고, 위상은 말할 수 없이 추락했다. 최근에는 산중총회에서 대성스님이 만장일치로 차기 주지로 추대되었지만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스님들은 서울지법에 주지임명절차이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범어사의 안정은 또 저만큼 멀어져버린 것이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런가 하는 문제를 따지기엔 범어사는 너무 멀리 흘러왔다. 한시라도 빨리 승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대중을 교화해야 할 스님들의 갈등은 교단 파괴와 위상약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교단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을 때는 능히 화합하며 남의 착한 일은 칭찬하되, 타인의 부끄러운 일은 결코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삭발염의한 불제자가 아니던가?

봉축을 앞 둔 요즘 범어사에 화합의 등이 밝혀지길 기원하는 마음들, 더욱 간절하다. 천미희 기자

고은, 만해 비판 근거는?

시인 고은 씨가 1975년 펴낸 <한용운 평전>이 새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논란의 도화선은 법보신문 이재형 차장이 <불교평론> 2004년 봄호에 게재한 ‘고은의 만해론을 비판한다’란 제목의 논단. 이 씨는 이 글에서 “고은 씨는 만해 스님을 열등감의 소유자이며 순수하지 못한 승려로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은 씨는 이 책에 대해 “만해의 인간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을 뿐”이라고 말한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고은 씨의 만해 스님에 대한 평가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가 제1회 만해시문학상 수상자이자 만해축전의 대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고은 씨가 책에서 만해 스님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만해축전의 대회장으로서 도덕적 이중성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30여 년 전 자신의 가치평가가 담긴 글을 수정이나 해명 없이 재발간한 것도 독자들이 만해 스님을 잘못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책임 없는 행동으로 비쳐진다.

고은 씨는 지금이라도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한다. 여수령 기자

기도하는 도량, 공부하는 도량, 이웃과 함께하는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奉恩寺

육조단경 논강 회향에 따른 감사의 말씀

선종 수 사찰이자 강남 최고의 포교도량인 봉은사는 지난 2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육조단경 논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육조단경은 선종 최고의 경전이며 선문제파(禪門諸派)의 종지가 파생되어 나온 원천이 되는 경전입니다. 특히 조계 혜능스님의 법맥을 계승한 우리 조계종에 있어 육조단경은 종단의 중요한 소의경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조단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조계종의 수행 가풍을 새롭게 하고 현대인의 선 수행의 생활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된 이 소중한 법석에 많은 대중이 동참하여 성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에 지면을 빌어 육조단경 논강이 여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훌륭한 법연을 베풀어 주신 모든 대덕스님과 선지식, 그리고 동참 대중과 설판재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논강을 빛내 주신 혜국 큰스님과 고우 큰스님, 그리고 지안 스님과 성본 스님을 비롯한 모든 논주와 논사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본 논강을 후원해주신 종단 관계 기관과 교계 언론사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봉은사는 이번 육조단경 논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도 새로운 논강, 새로운 법연을 조직하여 사부대중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동참이 있으시길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48년 4월 15일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산 봉은사 주지 설담 원혜 합장

불기2548 봉은사 봉축행사 안내

사월 초파일은 불교 최대의 경축일입니다. 어두운 사바세계에 진리의 빛을 밝히신 부처님을 기리기 위해 불자들은 연등을 밝혀 공양하고, 연등축제와 제등행진 등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로 부처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봉은사는 254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음과 같은 행사를 마련하여 불자님들과 함께 부처님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봉축 법요식 및 관불식(5월 26일, 대웅전 앞마당)
■ 전통 등 전시회(5월 19일 ~ 26일, 보우당)
■ 불교서적 및 용품전시 판매전(5월 19일 ~ 26일, 일주문 앞)
■ 봉은사 옛날 사진 콘테스트(5월 19일 ~ 26일, 법왕루)
■ 범종을 울려라!(불교 교리 퀴즈대회, 5월20일, 미륵전 앞)
■ 불교전통 혼례식 시연 (5월 25일, 대웅전 앞)
■ 불교사진작가협회 사진전시회(5월 23일 ~ 26일, 보우당)
■ 도농공동체 먹거리 장터(5월 19일 ~ 26일, 일주문 옆)
■ 연등축제 개막식(5월 19일, 대웅전 앞마당)
■ 동자승 출가체험(5월 16일 ~ 27일, 선불당)
■ 코엑스몰 포교활동(5월 22일, 삼성역 주변)
■ 서원사탕 나누기(초파일, 대웅전 앞마당)
■ 점등식(초파일, 봉은사 전역)

◆ 행사관련 문의 : 봉은사 포교실 ☎ 02)516 - 5652
◆ 봉축 등 접수 및 문의 : 봉은사 접수부 ☎ 02)3218 - 4800~5